

## 꾸지뽕나무 고조삼목을 위한 최적 발근조건 구명

성규병, 남학우, 조세연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민간 약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꾸지뽕나무는 자연상태에서 종자의 발아가 어려워 번식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고조삼목에 의한 묘목생산법을 구명하고자 적정온도, 삼수길이, 삼수의 굵기 및 발근촉진제 농도에 대하여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꾸지뽕나무를 삼목하여 24, 28, 32 및 36℃로 보호한 결과, 28℃에서 발근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주당 발근수도 8개로 가장 많아 최적온도는 28℃로 밝혀졌다.
2. 삼수 기부의 굵기에 따라 굵은 것(조경 11.5-14.5mm), 보통(9.5-10.5mm), 가는 것(7.0-8.5mm)으로 구분하여 삼목한 결과 보통 굵기가 가장 발근이 잘 되었다.
3. 삼수의 길이를 10cm, 15cm, 20cm의 길이로 삼목한 결과 15cm에서 가장 높은 발근율이 높았으며, 가장 짧은 10cm의 경우는 발근율이 좋지 않는 성적을 나타내었다.
4. 발근촉진제로서 IBA 순간처리 하였을 때, 5,000ppm 처리까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발근율이 높고 뿌리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10,000ppm의 고농도 처리구에서는 무처리보다 낮은 발근율을 나타내었다.